

# 지수 승산마을 부자들의 부자정신과 LG/GS그룹의 기업가정신

정대율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주저자

dyjeong@gnu.ac.kr)

## … 초 록 …

2018년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는 LG그룹 구인회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과 같은 글로벌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글로벌기업 창업주들이 무수히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는 정신적 지주를 삼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 사상의 근원으로 우리 조상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온 유학정신을 들 수 있다. 특히, 남명 조식선생의 실천중심의 경의사상(敬義思想)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지역에 많은 기업인을 배출하는데 있어 원동력이 되었다. 남명선생의 영향을 받아 실학적 사상이 강한 진주지역의 양반집안의 토지자본가들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시대로 넘어오자 그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토지자본을 기업자본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엄격한 유교적 전통을 지키면서 인본주의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바탕을 둔 경영을 통해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었다. 이 중에서 LG/GS그룹과 삼성그룹의 창업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의 만석꾼인 지신정(止愼亭) 허준(許駿) 선생이었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뛰어난 허준선생은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을 잘 지키면서 근검절약과 지혜로 당대에 만석꾼이 되었다. 그가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이 오늘날 LG/GS 그룹의 모태인 락희화학주식회사(현, LG 화학)는 물론이며,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물산주식회사 건립의 기초가 되었다.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지신정 허준 선생의 부자정신이 오늘날 LG/GS그룹 가문의 기업가정신인 인화와 인제제일주의, 도전과 개척정신, 정도경영, 부의 사회적 환원과 같은 기업가정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신정 허준선생의 부자정신을 연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만든 구씨와 허씨 간의 동업정신 및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과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정리함으로써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자정신과 기업가정신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승산마을의 LG/GS그룹 가문의 기업가정신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기업의 가치경영에 필요한 철학적, 이념적 기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핵심어** : 기업가정신, 노블레스 오블리주, LG그룹, GS그룹, 허준, 구인회

## I. 서 론

2018년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는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로 선포하였다. “진주는 천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역사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학문과 문화

와 정신의 도시이다. 근대에 와서는 LG, GS, 삼성, 효성 등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그룹들의 창업주를 배출하여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산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는 LG/GS그룹의 구인회 회장과 그 뒤를 이은 구정회-구태회-허준구

-허신구-허창수-허동수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효성그룹 조흥제 회장,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대교그룹 강영중 회장 등 300명이 넘는 우리나라 굴지의 창업기업인을 배출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진주의 지수초등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인들을 길러낸 교육의 전당이다.”

진주가 단순히 근대 우리나라 산업사회를 이끈 굴지의 글로벌 기업의 창업주들이 무수히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는 정신적 지주를 삼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 사상의 근원으로 우리 조상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온 유학정신을 들 수 있다. 특히, 남명 조식선생의 실천중심의 경의사상(敬義思想)과 같은 정신적 지주가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의 많은 유학자들을 통해 이어져와 이병철, 구인회, 조흥제 회장과 같은 굴지의 기업인을 배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허권수, 2018).

이한구(2015)는 한국의 기업가정신에는 유교사상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정대율(2018)은 기업가정신수도 선포문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뿌리로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같은 유학정신을 중요시 하고 있다. 남명 선생의 경의사상은 사람과 인재를 중시하고 의로운 뜻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정신이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인재제일주의, LG/GS그룹의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인

화정신, 효성그룹 창업주 조흥제 회장의 국민복과 같은 기업가정신으로 이어졌다(매일경제, 2018. 1. 12).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무대에 나아가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잘 수행하면서 오래가는 장수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기업가정신에 기초를 기업가정신의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상적, 철학적 뿌리를 튼튼히 하여 대한민국 기업인이 라면 누구나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승산마을의 허씨와 구씨 부자들은 조상 대대로 축적된 토지자본을 이용하여 구인회를 중심으로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에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었으며, 이것이 기반이 되어 오늘날 LG/GS그룹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근검절약과 겸손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으며, 화합을 제일의 가훈으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뿌리와 맥을 잇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진주시 승산마을의 LG/GS그룹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의 화합의 역사와 그 중심에 있는 지신정(止愼亭) 허준(許駿) 선생(1844~1932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신정 허준선생이 남긴 글과 비문을 통하여 부자정신을 연구하고, 그의 후손들의 만든 LG/GS 그룹의 동업정신과 기업가정신을 여러 가지 문헌과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자정신과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 Ⅱ. 승산마을의 부자 이야기

현재 승산마을에는 LG 구인회 회장 생가, LIG 구자원 본가, GS 창업주 허준구 생가와 그의 부친인 허만정 선생의 집, 그리고 그의 조부인 허준 선생이 만석군을 이룬 집을 포함해 많은 부잣집들의 집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구씨 대종중의 제각인 창강정, 허씨 대종중의 제각인 허연정, 허씨 종종 제실인 연산제 등 수많은 한옥 사당들이 있다. 또한 마을 뒤에는 지신정 허준 선생이 노년을 보내면서 많은 유학자들과 교육하기 위해 지은 지신정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승산마을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 살았는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지수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인 이충도(2021)의 조사에 따르면 구한말에는 지수 승산에는 만석군이 2집, 천석군이 상이 16집이나 되는 부호촌이었으며, 동네 전체 부를 합하면 약 46,000석 정도 규모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제강점기라 재산을 많이 드러나는 것은 두려워하였고, 재산을 낮게 부르는 허씨와 구씨집안의 겸손함을 감안 할 때 실제로는 60,000석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씨 집안이 이렇듯 큰 부자가 된 이치는 간단했다. “지독히도 부지런하게 일해서 벌고, 번 것은 쓰지 않았으며, 쓰지 않으니 자연히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허씨 집안 사람들의 근면과 절약에 관해서는 전설 같은 얘기들이 전해온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담뱃대에 담

배를 채고 빨기는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고 입김만 내뿜었다” “여름에 부채를 펴고는 있지만, 부채가 상할까 봐 부채 대신 얼굴을 흔들었다”, “머슴들이 일하는 곳에 와서 담뱃대에 담배를 재놓고 가곤 했는데, ‘내가 언제 이 담배를 피우러 올지 모르니 쉬지 말고 일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승처럼’ 쓸 줄 아는 미덕도 겸비한 구두쇠였다. 허씨들은 베풀기를 좋아했는데 지신정 허준 선생이 허씨 의장(許氏 義莊)을 만들었고, 효주 허만정이 일신학교(현 진주여고)를 짓는 등 나눔을 실천하였다. 허씨 가문은 이른 아침이면 쌀 한 말로 밥을 지어놓고 날마다 물려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끼니를 대줄 만큼 인심이 후했다고 한다. 1920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허만정씨의 부친인 승지(承旨) 허준(許駿)이 생활비만 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전부 공익사업에 쓰고자 해 재산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허만정 선생도 1925년 진주에 일신여고를 세우고, ‘백산상회’라는 위장회사를 만들어 독립자금을 조달했다.

허씨 가문의 사람들은 근검과 절약으로 큰 재산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쓸 줄 알았다. 이들은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 잡음 없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 없이 기업경영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만정이 럭키에 전체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출자하고 LG에 근무하는 자기 아들 허신구 등 자기 아들들에게 “앞에 나서지 마라. 조용히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라”고

순응과 겸손의 미덕을 가르쳤다. 허씨들은 구씨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모두 구씨들의 공으로 돌렸다. 이런 것이 다 유학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허권수, 2018).

오늘날 민족기업자본의 원천은 바로 만석꾼 지신정 허준 선생의 근검절약과 지혜, 그리고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향년 42세(1886년, 고종 23년)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그 후 47세(1891년) 때 첫 관직인 선공감 가감역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57세(1901년) 중추원 의관, 59세 때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승정원에서 봉직되었으나 세상이 시끄럽자 귀향하였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을 잘 지키면서 근검절약을 통해 당대에 만석꾼이 되었다. 그가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이 오늘날 LG/GS 그룹의 모태인 락희화학주식회사(현, LG 화학)와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물산주식회사 건립의 기초가 되었다.

허준 선생은 77세 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열 명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집안 친족을 모아놓고 사후의 재산(위태로운 것) 분배에 관하여 유언을 남기고 이것을 비문으로 새겨 후손들의 재산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보였다. 이것이 바로 ‘허씨 의장비(許氏 義莊碑)’이다. 이 ‘허씨 의장비’에는 자신이 일생동안 모은 재산을 진주여고의 전신인 진주일신학교 설립과 조상수호, 친족과 이웃 구휼, 국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상수호에 180 두락, 친족 구휼을 위해 140두락, 딸들에게 120두락, 일신학당(현 진주여고) 건립에 500 두락, 마을에 궁핍한 사람을 돕는데 7천 원을 분배하라고 적혀 있다. 또한 ‘허씨 의장헌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휼과 60이상이 된 노인의 양로에 대해 적혀 있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관직(승지)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말년에 마을 뒷편의 명당 자리에 자신의 호를 딴 지신정(止愼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학문을 가다듬었다. 지신정이 있는 곳은 보양산 자락을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여 학문을 닦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지신정은 그 풍경이 아름답고 명당자리여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하기를 원하는 곳이다. 특히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방어산을 방문한 내려와 둘러보는 곳이다.

### III. LG/GS의 기업가정신

#### 3.1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투자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었다. 이들은 교육사업과 이웃들의 구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날 기업가정신의 중심인 지수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한 집안은 승산리 허씨와 구씨 집안이다. 최초 지수초등학교 건립에 필

요한 부지는 승산리에 거주하는 청계공(聽溪公) 허복(許馥) (1866~1966년) 선생이 회사하였다. 허복 선생의 아들 허병호(許秉顯, 1920~2003년) 선생은 선대의 옥봉정(玉峰亭)을 개수하여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 후 이 학교는 인근의 반성중학교에 병합되었다. 이와 같이 3대에 걸쳐서 지역 교육을 위해 헌신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이다.

1924년 10월 허만정 선생을 비롯한 지방 유지 10명이 일신재단(一新財團)을 조직하여 이듬해 4월, 4년제의 사립 진주일신여자고등학교(晉州一新女子高等學校)를 설립하였다. 당시 허만정 선생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길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임을 절감하여 아버지 허준(許駿) 선생의 도움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뜻이 부근에 널리 알려지고 교육구국의 여론을 환기시키게 되었다.

허만정 선생의 아들 허완구 회장은 1988년 진주여고 생활관인 효주기념관 준공과 함께 1991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물 3개동(교실 50개)을 신축하는데 100억 원을 회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LG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과 그의 아들 상남 구자경 회장은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사업에 많은 재산을 투자하였다. 이들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1974년 충남 천안에 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를 개교하여 1979년 연암축산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2003

년 천안연암대학으로 명칭변경 후, 2016년 연암대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또한 1984년 고향 진주에 연암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여 2016년 연암공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외에 LG의 교육지원사업으로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건립,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건립,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조성 부지 제공 및 LG개척고시관 건립 등 매우 다양하다. 구인회 회장은 진주 시민을 위해 1968년 진주성 내에 연암도서관을 기부하였다. 1985년 진주시는 이 도서관을 진주시립 연암도서관으로 바꾸어 현재 있는 상대동으로 이전하였다.

### 3.2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부의 사회적 환원

승산마을에 뿌리를 둔 GS그룹 허씨가문과 LG그룹 구씨가문은 300년간 사이좋게 지내 오면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철저한 도덕적 기품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에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LG와 GS가 선대들이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온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애국사업 등 사회공헌에 다른 기업들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이충도, 2021). 1969년 9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기리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 추진의 뜻이 모아졌고, 1969년 12월 27일 구인회 회장의 아호를 딴 연암문화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 연암문화재

단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의 양성과 과학 기술의 진흥, 문화·예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기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 구인회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구인회 회장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생각은 그의 경영철학인 사업보국(事業保國)과 맞닿아 있다(이상호, 정대율, 2022). 이후 이들은 LG재단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사업과 사회공헌사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 LG 연암문화재단
- LG 복지재단
- LG 상록재단
- 연암학원(연암공과대학, 연암대학교)
- LG상남도서관 건립

GS그룹 역시 자회사·계열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 회사의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쳐 기업의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누어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선대의 고귀한 정신을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크다.

허씨가문 역시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다. 승산리 마을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지수면사무소 바로 옆에 효주공원(曉洲公園)이 자리잡고 있다. 효주공원은 허만정(許萬正)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공원이다. 효주공원은 2006년 5월 26일 허만정의 6남 허승효(알토전기 회장)가 어머니인 하위정의 유언에 따라 모든 면

민들이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 조성된 공원이다. 당시 이공원은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6,000㎡(4,840평) 규모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연간 관리비 5,000만원을 허승효 회장이 부담하고 있다. 효주공원은 아마 개인 면단위 마을에 만든 가장 큰 공원일 것이다.

### 3.3 허씨와 구씨의 화합정신

승산마을은 허씨 문중과 구씨 문중이 30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도 일체의 폭력사건이 없이 살아왔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 좌파와 우파 간의 살생이 계속 이어졌는데 승산마을을 포함한 지수면에서는 살생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부자 동네에 살생이 많았으나 지수면의 경우는 효주 허만정 선생이 도덕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생을 막아낼 수 있었다. .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1923년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운동인 형평사(衡平社) 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허만정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신분과 계급을 넘어선 그의 관심과 애정이 승산마을과 지수면을 죽이지 않는 불살지덕(不殺之德)의 유풍이 남아 있는 동네로 만들었으며, 그가 도덕적 카리스마를 갖춘 어른으로 존경받는 이유이다. 이 모든 것이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의 애민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사대부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진정한 유학사상의 발호이며,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의 발호라 할 수 있다.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은 300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혼인관계를 통한 혈맹과 화합으로 상호 신뢰를 쌓았다. 특히, 1920년 구씨 집안의 구인회와 바로 옆집의 허씨 집안의 허을수가 결혼을 함에 따라 오늘날 LG/GS그룹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구인회는 처남들과 함께 1931년 진주 중앙시장에서 포목점인 ‘구인회상점’을 열었고 서로 신뢰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 구인회의 결혼으로 ‘구씨’와 ‘허씨’가문의 동업이 시작되었으며, 두 집안의 부(富)가 모여 오늘날 LG/GS 그룹의 근대 기업자본의 원천이 되었다. 즉, 승산마을 구인회와 허을수의 결혼으로 구인회가 사업을 시작한 일은 근대자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이 승산마을 부자들이 토지자본에서 상업자본으로 옮겨가게 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두 가문이 힘을 모아 1947년 1월 오늘날 LG화학의 전신인 락희화학공업사를 부산시 서구 대신동에 창립함으로써 토지자본에서 상업자본, 그리고 근대 산업자본으로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승산마을 ‘구씨’집안과 ‘허씨’집안은 구인회와 허을수 간의 혼인 이외에도 8건의 접사돈을 맺게 되면서 ‘한 가족’처럼 기업 경영을 하였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허씨 집안에서 제공하였고 경영은 구씨 집안에서 주로 하였다. 추진력을

가진 구씨는 외부적 경영, 치밀함을 가진 허씨는 내부적 경영을 맡았다. 승산마을 구씨와 허씨 가문의 동업과 아름다운 이별은 이미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씨’와 ‘허씨’의 57년간 동업에서 지분 분할, 경영권 승계 과정 등에서 큰 잡음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기업사례이다. 이러한 신뢰와 화합의 정신은 LG/GS 그룹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들은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 경영권에 있어 잡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없는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보여왔다. 효주 허만정 선생은 오늘날 LG/GS 그룹의 모태인 락희화학공업사(락희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자신의 전체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출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허신구, 허준구 등 자기 아들들에게 “앞에 나서지 마라. 조용히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라”고 순응과 겸손의 미덕을 가르쳤다. 허씨들은 구씨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모두 구씨들의 공으로 돌렸다. 이런 것이 다 믿음과 예의를 중시하는 유학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허권수, 2018).

이러한 화합경영과 철저한 집안간의 역할 분담은 더 큰 성과를 낳았다. 특히, 네덜란드 PHILIPS사의 크리스털 리(Crystal Lee) 회장은 LG그룹이 ‘구씨’와 ‘허씨’가문이 50년 동안 조화를 이루며 동업을 한 것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

았다. 이것이 1999년 PHILIPS사로부터 LG필립스 설립을 위해 1조 6천억원 투자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 간의 57년간의 동업 후 2004년 정식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때, 이들은 큰 잡음 없이 순조롭게 거대 그룹이 분리되었다. 여기에는 두 집안 간의 철저한 믿음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LG/GS그룹의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들을 요약하면 인화와 인간존중, 도전과 개척정신, 부(富)의 사회적 환원으로 나눌 수 있다(이상호, 정대율, 2022).

연암 구인회 회장은 명문 유학자 가문의 자손으로 철저한 유교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경영에 있어 인화(人和)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그의 말 가운데 “사람을 사귀었으면 결별하지 말고, 부득이 결별한다 해도 적을 만들지는 말아라.”, “남이 하는 사업을 보고 뒤따라 같은 사업을 벌려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들은 유학자 가문의 자손다운 말이다. 연암 구인회 선생은 누구보다 확고한 경영철학과 신념을 가진 분이다. 연암 선생은 제조업을 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부흥한다고 믿었다. 이렇듯 구인회는 인화(人和)가 기업경영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였다.

구인회 회장의 인화단결은 구자경 회장의 인간존중 경영으로 이어졌다. 구인회 회장이 해방 후 부산에서 트럭 운수업을 시작할 때, 허만정 선생이 셋째 아들 허준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맡아서

훈련도 시키고, 경영교육도 좀 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동시에 사업 자금도 투자하고 싶다는 제의를 했다. 허만정 선생은 구인회 회장의 장인인 허만식 선생과는 재종간이었다. 구인회 회장은 허만정 선생의 부탁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때부터 구씨 집안과 허씨 집안 사람들의 기업경영의 동업 관계가 시작되었다. 구본무 회장 시절 LG그룹은 구인회 회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구씨 집안 형제와 허씨 집안사람들의 동업 관계를 슬기롭게 청산했다. 구씨의 LG그룹과 허씨의 GS 그룹 분리가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은 구인회 회장이 강조했던 인화단결의 결실에 해당한다(이상호, 정대율, 2022).

#### IV. 결 론

지수 승산마을은 김해 허씨들이 550년 전 조선조 초기에 자리를 먼저 잡았고, 그 이후 조선 중기에 능성 구씨가 허씨와의 혼맥을 통해 이거해 온 후 지난 300년 동안 두 가문은 화합하며 살아왔다. 그러한 화합의 정신이 오늘날 LG/GS라는 거대 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승산마을은 지리적으로 볼 때 명당에 자리를 잡고 있어 예로부터 재물이 모이고 많은 인재들의 나왔다. 승산마을 부자들은 다른 지역의 부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근검절약과 인화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으며, 이웃을 위해서는 항상 술선수범하여 베풀기를 좋아했다. 또한 국가가 어려울 때는 홀연히 일

어났다. 이러한 그들의 나눔정신과 애국정신이 LG/GS의 창업주 구인회에게 이어졌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 LG 구인회 회장의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을 살펴보면 인화경영(人和經營), 정도경영(正道經營), 사업보국(事業保國)이 중심 키워드이다. 이 세 단어 속에 승산마을 부자들의 정신이 다 녹아 있다고 보아진다.

승산마을 부자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허씨 집안에서는 지수초등학교를 만들고, 반성중학교, 진주여고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허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기업을 만든 구인회 회장과 그의 아들 구자경 회장은 천안연암대학, 연암공과대학 등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하였다. 또한 이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상국립대 등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서 필요한 건물과 재원의 확보에 큰 지원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승산마을 부자들의 부자정신을 정리하면 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하면서 근검절약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였다. 그들의 후손들이 창업한 기업의 명칭에 셋별(금성)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리고 그들은 솔바위 부자전설과 방어산의 정기를 믿었던 것 같다. 이름에 솔 정(鼎)자가 많으며, 승산에 관한 명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항상 주변사람들에게는 겸손과 겸양의 자세로 살아 거친 세파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였으며, 집안 간에 화합하고 자손들 간에 화목하며 지역민들과 화합을 강조함으로써 아무런

잡음이 없다. 이것은 이들 두 집안이 철저한 유교적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바른 길을 추구하였다. 구인회 회장의 정도경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이들은 지역민들의 구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통해 번 돈을 지역사회와 국가의 대계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승산마을 부자들과 그 후손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가진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승산마을 부자들의 용전(用錢) 철학은 정말로 후세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부자정신이다.

지금까지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의 부자정신과 기업가정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근검절약-부의 축적, 새벽별보기(금성, 셋별)
- ② 구국정신-임진왜란 의병, 구한말 독립자금, 사업보국
- ③ 겸손과 겸양- 거친 세파 속에서 살아남음
- ④ 인화-허씨와 구씨 화합, 집안 내 자손간 화목, 지역민간 화합
- ⑤ 정도-옳은 일을 함, 제조업에 집중, 성실한 납세
- ⑥ 구휼정신-지역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 ⑦ 백년대계- 교육에 투자(진주여고, 연암공대 등)
- ⑧ 사회환원- 지역민과 국가에 환원, 사

업보국

⑨ 네트워킹- 허준 선생의 전국적 명사와의 교류

⑩ 혼맥을 통한 인적 결합 - 지역 내 강씨, 하씨, 정씨, 조씨 등 명문가문과 혼맥, 삼성과의 혼맥

⑪ 신뢰- 허만정선생은 자신의 자산의 1/3과 자녀들을 구인회에게 맡김

우리나라도 이제 100년이 넘는 장수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기업가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경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의 부자정신과 기업가정신은 진정으로 오래가는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뿌리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가치경영, 그리고 ESG 경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철학적, 사상적, 이념적 기초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2017), 智水 勝山마을의 역사와 인물, 2017년 남명학연구소 하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2017.10.27.

김덕현·유동희·정대율(2020),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35(2)(통권 94호), 61-81.

김영주(2017), 晩梅 具然鎬의 生涯와 出處, 남명학연구, 56, 179-217.

김성수(2000), 연암 구인회와 상남 구자경의 생애와 경영이념, 경영사연구, 22, 7-59.

김영태(2012), 비전을 이루려면 I, (주) LG.

김영태(2012), 비전을 이루려면 II, (주) LG.

이상호, 정대율(2022), LG그룹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유교적 뿌리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37(1), 5-33.

이충도(2018), 진주 지수면 승산리의 역사와 지수초등학교 기업인,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40-55.

이충도(2021), LG/GS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한국경영학회 주관 기업가정신 연구 및 확산 포럼 자료집, 2021.01.28.

정대율(2021),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止慎亭 許駿 遺稿帖, 2008.5.

진주시(2018), 남명사상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18.9.5.

曉州家狀, 2010.5.

허권수(2018),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경남의 유가기업,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1-21.